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 도 자 료</b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1. 12. 8.(수) / 총 5매(본문3, 참고2)	
담당 부서 공원정책과	담당 자	·과장 김현진, 사무관 박세진·고경곤 ·☎ (02) 2131-2037, 2032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8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,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

### - 스포츠필드·소프트볼장의 개방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착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반환된 용산기지 내 스포츠 필드\*·소프트볼장\*\*을 공원조성이 본격화되기 이전 임시활용 목적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\* 국립중앙박물관 북측, 약 4.5만㎡ / \*\* 기지 동남쪽, 장교숙소 5단지 북측, 약 0.8만㎡

○ 해당 부지는 '05년 용산 국가공원 조성 발표 이후 최초로 반환 받은 용산기지로서, '19.12월 개시된 SOFA\* 절차에 따라 한미간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로 '20.12월 반환된 것이다.

\* 주한미군지위협정(SOFA),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미군의 한국 내 토지 및 시설 사용 문제와 기타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양국 간 합의

□ 국토교통부는 부지반환 이후 용산기지 내 미군이 사용 중인 구역과 반환된 구역을 분리하기 위해 보안울타리를 설치('21.4~'21.9)하였으며, 대국민 의견수렴\*을 거쳐 부지 활용방안을 결정하고, 설계를 완료하였다.

\* 지역주민·국민참여단 등 인터뷰 결과, 기존 용도(스포츠 시설) 유지 의견 다수

- 반환부지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.
  - (스포츠필드)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약 4.5만<sup>m</sup>2 정도의 부지이며, 기존 미군들이 체육활동을 하던 공간으로 축구장·야구장은 인조잔디 보수·안전 울타리 설치 등 보완공사를 거쳐 기존 용도대로 사용하고, 공원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공간은 산책로로 조성된다.
  - (소프트볼장) 용산기지 동남쪽에 약 8천<sup>m</sup>2의 면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, 이번 조성공사를 통해 부지정리를 거쳐 체육시설로 사용 하되, 기 개방중인 장교숙소 5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5단지와 연계한 야외 행사공간 등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(22.3월)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, 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마련 등 사전준비를 마치는 대로 해당시설을 국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“이번 조치는 ‘05년 용산공원 조성 발표 이후 반환된 부지가 최초로 국민에게 개방 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”면서,
  - “앞으로도 반환되는 부지는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국민들이 활용하 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이와 함께 ‘20.7월부터 개방되어 이국적인 풍경으로 최근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(용산기지 내 동남쪽에 위치)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와 건물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.

○ 기존 조성된 공간 외 단지 내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·실외정원·광장 등을 실외에 조성하고, 인접한 건물은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·라운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.

※ 장교숙소 5단지는 미측 요청에 따라 '86년 반환된 부지로 LH가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미측에 장교용 숙소로 제공해왔던 것을 '19.11월 미군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를 전시관,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(전체 18개동 중 5개동)하여 '20.7월부터 개방하고 있음

	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원정책과 박세진, 고경곤 사무관(☎ 02-2131-2037, 20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

## 참고 2

## 반환부지 조성 계획안

### ○ 스포츠필드



### ○ 장교숙소 5단지

